

이틀 연속 솔로포...4연승 지휘한 피렐라

KT전 뼈기흥런 포함 멀티히트 활약
10일에도 승부결정 짓는 결승 솔로
삼성, 개막 4연패 후 4연승 신바람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타자 호세 피렐라(32)가 이틀 연속 아치로 자신에게 붙은 의문부호를 지워가고 있다.

피렐라는 1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벌어진 KT 위즈와 홈경기에서 팀이 2-1의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6회말 1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월 솔로홈런을 터트렸다. 볼카운트 2B-1S서 KT 선발투수 오드리스마 데이파이스네의 커터(시속 142km)가 몸쪽 높게 형성되자 지체 없이 방망이를 들렸다.

8회말 4번째 타석에선 중전안타로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후속타자 강민호의 중전안타 때 적극적 주루로 3루까지 내달린 뒤 김동엽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득점을 추가했다. 4-2로 승리한 삼성은 개막 4연패 후 4연승으로 승률 5할을 찍었다.

피렐라는 전날(10일)에도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이 연승을 이어가는 데 기여했다. 7회말 6-6 동점에서 KT 핵심 불펜요원 주권을 상대로 솔로 아치를 그렸다. 경기가 7-6으로 마무리되면서 피렐라는 결승타점도 기록했다.

개막전부터 꾸준히 4번타자로 나서고 있는 피렐라는 아쉬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개막 후 3경기에서 안타 2개를 뽑는데 그쳤다. 장타는 하나도 없었다. 7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에서 3안타를 치며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이후 2경기에선 다시 무안타로 침묵했다. 그를 향한 의문부호는 점차 커졌다.

그러나 삼성 허삼영 감독은 달랐다. 허 감독은 "한국 투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경기를 치르면서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 더 길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며 계속해서 기회를 줄 뜻을 분명히 했다.

허 감독은 피렐라를 2014년부터 2시즌 동안 삼성에서 뛰 아미아코 나바로처럼 중장거리 타자로 판단하고 있다.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에서 간혹 장타를 터트렸지만, 피렐라는 정확도에 장점이 있는 타자다. 이날 KT전까지 8경기에서 총



삼성 피렐라(왼쪽)가 1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전에서 6회말 솔로포를 터트린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피렐라는 이날 홈런 포함, 멀티히트 활약으로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KBO리그 경기결과		▶ 11일
잠실	SSG 0 : 1 LG	
대전	두산 2 : 3 한화	
대구	KT 2 : 4 삼성	
사직	키움 3 (연장11회) 2 롯데	
광주	NC 7 : 3 KIA	

9안타를 때려냈는데, 홈런을 제외한 7개의 안타가 모두 단타다. 다행히 이틀 연속 홈런 1개씩을 포함해 4타수 2안타의 멀티히트를 작성하면서 타격감을 서서히 찾는 느낌이다.

한편 삼성 마무리투수 오승환은 4-1로 앞선 9회초 등판했다. 3일 연속 마운드에 오른 그는 3안타로 1실점했지만 팀의 승리를 지켰다. 시즌 3세이브제를 올린 오승환은 KBO리그 통산 첫 300세이브에 2개 차로 다가섰다.

대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김동엽 복귀 삼성, 최재흥·오재일도 이달말 합류



최재흥 오재일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시즌 개막 직전 주축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고심했다. 10일 첫 번째 복귀자가 나왔다. 외야수 김동엽(31)이 1군에 등록됐다. 삼성 허삼영 감독은 11일 대구 KT 위즈전에 앞서 투수 최재흥(26), 1루수 오재일(35) 등 다른 부상자들의 근황도 알렸다.

허 감독은 "최재흥은 어제(10일) 부상 후 처음으로 볼펜에서 공 36개를 던졌다. 부상 부위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13일 한 번 더 테스트한다"며 "2번째 볼펜투구도 성공적으로 마치면 2군에서 1, 2차례 등판해야 한다. 선발요원이라 투구수를 늘리는 작업을 마쳐야 1군에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흥은 지난달 중순 옆구리 근육 부상으로 8주 진단을 받았다.

시범경기 도중 다친 오재일도 복귀 수순에 돌입했다. 오재일은 지난달 26일 복사근 부상으로 5주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허 감독은 "오재일은 티배팅 훈련을 했는데 통증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복귀까지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흥과 오재일은 복귀를 위한 훈련에 돌입한 만큼 이르면 4월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벌써 2개 홈쳤다...도루하는 39세 베테랑 추신수

김원형 감독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

타고투저 경향이 뚜렷한 KBO리그에서 도루의 가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성공률이 70%에 못 미치면 안 뛰느니만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물며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베테랑들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기본적으로 신체능력이 감소하는 데다, 부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앞선 3년간 39세 이상 선수의 도루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 14개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박용택(8개), 박한이(5개 이상 은퇴)의 지분이 절대적이었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9·SSG 랜더스)의 센스는 이런 통념 위에 있다. 추신수는 10일 잠실 LG 트윈스전 0-1로 뒤진 3회초 1사 1루서 우전안타를 치고 출루했다. 이어진 1-3루 찬스에서 최정의 희생플라이로 1-1 동점. 추신수는 후속 최주환 타석서 2루를 홈쳤다. 볼카운트 2B-2S서 케이지 켈리의 타 이밍을 완전히 빼앗았다. KBO리그 2호 도루였다. 추신수는 4일 인천 롯데 자이언츠 전에서도 베이스를 훔친 바 있다.

KBO리그 공식 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추신수의 4일 기록은 역대 최고령 첫 도루 타이 기록이다. 종전 1982년 백인천, 2000년 훌리오 프랑코(이상 39)와 어깨를 나



SSG 추신수

란히 한 것이다. 물론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16년간 통산 157도루를 기록했으니 '첫 도루'의 의미는 달랐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한국 나이로 불혹에 접어든 베테랑이 개막 6경기 만에 2개의 베이스를 훔친 것이다.

벤치에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 김원형 SSG 감독은 11일 LG전에 앞서 "사인을 내지 않았다. 본인의 센스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앞선 도루 2개를 살펴보면 전성기만큼의 폭발적 스피드는 아니지만, 투수의 타이밍을 빼앗아 여유 있게 살았다. 세월은 스피드를 빼앗아간 대신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와 센스를 안겨줬다.

SSG는 이런 베테랑을 길게 보고 있다. 추신수는 10일까지 6경기 중 4경기에 지명타자로 출장했고, 우익수 수비를 2차례 봤다. 11일 경기는 선발 제외였고 9회초 대타로 나와 범타로 물러났다. 김 감독은 "144경기를 완주하기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며 웃은 뒤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휴식을 한 번씩 취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국내 최다 CEO를 배출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양대는 지난 80여년간 10,213명의 CEO를 배출했습니다. 이제 미래의 리더가 될 새로운 주인공을 찾습니다.

10,213

※ 출처 : 한국기업데이터 (KED), 2018

대한민국 성장동력
한양대학교